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로의 불림과 우리의 회칙 - 금요 양성 2024년 5월 31일

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제, 예언자, 왕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다. 이는 모든 가톨릭인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보편 교회의 교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원이 되게 한다... “거룩한 사제단”(1베드 2,5)이 되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한다.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1베드 2,9). 세례를 받으면 신자들은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67,1268)

대사제이시며 유일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 (묵시록 1:6, 5:9-10 참조, 베드로 1서 2:5,9) 가 되게 하셨다... 신자들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세례로 받은 사제직을 수행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46)

“재속프란치스코회에서의 서약은 세례의 약속을 강화시켜준다. 우리가 프란치스칸 생활 양식을 따라 사는데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있다. 세례 성사에 원천을 둔 일치는 국가, 언어, 문화, 사회 계급의 경계를 초월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프란치스칸 영성이 가미된 예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과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불림을 받았다.” (프란치스칸 여정 p.48)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로의 불림이 회칙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사제직: 하느님과 인간사이를 연결하고, 화목과 평화를 이루며, 기도와 성사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좋은 본보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더 큰 공동체로 가져와 기여한다

회칙과 회헌의 많은 조항에서 이것을 찾아 볼 수 있다:

회칙: 5조, 8조, 10조, 11조, 12조, 19조

회헌: 2조 1항, 3조 2-3항, 8조, 10조, 11조, 12조 3항, 13조, 14조

+예언직: 말과 행동과 개인적인 모범으로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가톨릭의 시각 (우리의 경우에는 프란치스칸의 시각)으로 시대의 징조에 대해 말한다. 가톨릭이며 프란치스칸으로서의 본인의 영속 양성에 책임을 지며, 성서, 성 프란시스, 성 글라라, 성 보나벤투라의 글들,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들의 글을 접한다. 또한 형제회내에서 배울 기회를 가진다.

회칙과 회헌

회칙 4조, 6조, 13조 회헌 8조 2항, 9조 2항, 12조, 15조

+**왕직**: 공동체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재능을 하느님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섬기는 지도자가 되려는 열의를 보이며 우리 모두가 불림을 받았음을 이해하고 그 성소를 완수하도록 격려해 준다.

회칙과 회헌

회칙: 15조, 16조, 17조 18조, 21조 24조 회헌: 15조, 17-27조

보다시피, 우리의 회칙과 회헌은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라는 소명을 재확인하고 강화해 준다. 위에 언급된 회칙과 회헌 조항들을 (아마 적용될수 있는 더 많은 조항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읽어 보시오. 읽은 후에 (다음 링크에 영어로 된 회칙이 있음: <https://ciofs.info/library/official-documents/>) 다음 질문에 대답하고 저널에 기록하거나 기도 파트너와 나누어 보시오.

- + “사제직,예언자직, 왕직 ”으로의 소명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 +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회칙이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 + 이 소명의 어느 역할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집니까? 어떤 역할이 가장 어렵습니까?